

## 李炳翰, 「反轉의 時代」<sup>1)</sup>

### 1. 서문

#### 冊머리에 - 進歩의 終焉, 歷史의 蘇生

《轉換時代의 論理》의 副題를 記憶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아시아, 中國, 韓國’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改訂版에서는 사라졌다. 일찍이 韓-美-日의 組合을 허물고 아시아-中國-韓國이라는 새 構圖를 펼쳐 보인 것이다. ‘竹의 帳幕’ 너머를 再認識함으로써 그 反對便에 자리했던 韓國의 省察을 觸發했다. 돌아보면 誤謬와 誤判도 적지 않았다. 文化大革命과 베트남戰爭을 理解하는 讀法이 치우쳤다. 그럼에도 韓國과 韓半島의 矛盾을 暴露하는 效果만은 커다랐다. ‘反共’의 偶像에 挑戰하는 理性的 冒險, 國是를 갈아엎는 正名의 出現이었다. 한 世代의 世界 認識을 劇적으로 轉換시킨 李泳禧 先生은 ‘時代의 恩師’로 모자람이 없었다.

그분의 말마따나 ‘새는 左右의 날개로 난다.’ 그의 思想的 後裔들이 왼쪽 날개를 말기 始作했다. 1987年을 前後로 韓國의 ‘民主化’도 이끌었다. 허나 그로부터 30年, ‘反動의 歲月’에 逢着했다. 왼쪽 날개는 再次 부러졌다. 與野를 莫論하고 右傾化가 尤甚하다. 그러나 左右의 均衡을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는 ‘歷史의 反復’에 그치고 말 것이다. 反動도 反復도 아닌, 反轉을 窮理하는 까닭이다. 後學의 苦悶이다.

左右의 날개만이 重要했던 것이 아니다. 關鍵은 兩날개짓으로 날아가는 方向이었다. 開發派도 改革派도 서쪽으로 내달렸다. 한쪽은 産業化로, 다른 쪽은 民主化로 全力으로 疾走했다. 정작 當到하여 目睹한 것은 아뿔싸, ‘西歐의 黃昏’이다. 겨우 따라잡았나 했더니, 近代文明 自體가 저물고 있다. 進歩(Progress)의 막다른 곳에서 右往左往 갈피를 못 잡는다. 左도 右도 100年의 北極星을 喪失하고 茫然自失이다. ‘다른 百年’의 論理를 갈고 닦는 것이 後學의 責務일 것이다. 左右(Left-Right) 合作만큼이나 東西 合作, 古今 合作을 研磨(or 練磨 or 鍊磨)한다.

목은 글을 묶었다. 2012年에서 2014年 사이 ‘東아시아를 묻다’라는 題目으로 《프레이시안》에 連載했던 글들이 다. 돌아보니 빼거나 고치고 싶은 대목이 없지 않다. 하지만 最大한 修正을 삼가기로 했다. ‘歷史로 時事에 介入한다’는 나름의 原則을 살려두고자 했다. 다만 頭緒없던 글들을 크게 셋으로 갈랐다. 天下, 德治, 東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要領것 順序를 調停했다.

1部 天下는 中華世界의 原理를 바탕으로 ‘國家 間 體制’(inter-state system)를 回顧한다. 中華秩序와 國際秩序의 貸借對照表를 그려본다. 東아시아의 戰國時代를 마감하고 太平天下를 回復하는 方便으로 옛 秩序의 更新을 講究한다. 2部 德治는 東方形 政治의 理想에 비추어 西方의 ‘民主主義’(Democracy)를 回監해본 것이다. 一國의으로도 地球的으로도 昏迷해진 ‘새 政治’의 出路를 찾는데 一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3部 東學은 東方의 옛 學問과 西方의 새 學問을 아우른 回心을 圖謀한다. 오래된 儒學을 固執하지도 않고, 最新의 西學을 盲從하지도 않으며, 朝鮮에서 솟아났던 改新儒學=東學의 繼承을 標榜한다.

天下의 回顧, 德治의 回監, 東學의 回心, 이 三合을 通하여 꾀하는 것은 歷史의 回向, 東方의 歸還이다. 反轉時代의 到來를 豫備하고 準備하는 마중물이고 싶다.

이 冊에서 나의 獨創은 조금도 없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셨다. 옛 말씀 가운데 살릴 것은 살을 붙이고, 덜어낼 것은 도려냈다. 새 말이 지나친 곳에는 옛 말을 보태었고, 옛 말이 낡았다 싶으면 산뜻한 말로 엮었다.

1) 李炳翰, 「反轉의 時代-世界史의 轉換과 中華世系의 歸還」, 서해문집, 2016. pp. 4~7

이트했다. 20世紀를 支配한 宣傳煽動은 音消去로 지워내고, 沈默을 強要당한 낮은 목소리에는 스피커를 담아 불륨을 키웠다.

지난 3年, 내 글을 가장 먼저 읽어준 이가 《프리티안》의 강양구 記者이다. 지난 석 달, 마지막으로 읽으며 다듬어준 이가 西海文集의 김정희 編輯者이다. 두 분의 功이 크다. 勞苦를 오래 記憶해두고 싶다.

感謝한 마음을 表하고 싶은 이들은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一一이 呼名하지는 않기로 한다. 두고두고 機會가 있을 것이다. 첫 冊에서는 但 두 분만 記錄해두고 싶다. 이장표, 윤석희, 두 분께 이 冊을 드린다. 默默하게, 지긋하게, 오래 기다려 주셨다. 나의 肉身만큼이나 精神 또한 그들이 빚어내신 것이다.

2016年 4月 印度 뉴델리 네루大學에서

李炳翰

## 2. 한자 소개 - ‘近代’

우리는 ‘近代’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근대사, 근대문학, 근대개화기, 탈근대 등 ‘近代’라는 말은 여기저기에 보인다. 사전에서는 ‘近代’를 ‘1) 얼마 지나가지 않은 가까운 시대, 2) <역사>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중세와 현대 사이의 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2)의 뒤에는 각 나라별로 그 시대 구분이 정확히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近代’는 단순히 가까운 시기를 의미하거나, 시대 구분의 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近代’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아니었다. 수업의 취지에 맞게 ① 西歐의 淵源과 ② 中世 東아시아에서의 用例, ③ 近代 日本에서 翻譯된 翻譯語 및 ④ 現代社會에서의 意味 네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近代’는 英語의 ‘modern’의 번역어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modern’을 ‘1) 지금 있다. 2) 먼 과거와 구별하여 현재 및 그에 가까운 무렵의, 또는 그것에 속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또는 그것에 속해 있는, 또는 태어난. 역사상의 용법으로는 (고대, 중세와 대비하여) 중세 이후의 시대 및 그 시대의 사건, 인물, 작가 등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modern’은 6세기 가톨릭에서 성직자들이 當代를 로마적이고 이교도적인 이전 시기와 구분 짓기 위해 만든 단어인 ‘modernus’에서 연원하였다. ‘modernus’는 ‘지금, 방금’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modo’에서 파생시켜 만든 단어이다. ‘modernus’는 ‘현재 또는 최근의, 현재 또는 최근과 관련되는’의 의미를 가지는데, 16세기 중세프랑스어에서 ‘moderné’로 변형된 뒤에 영어에 유입되어 ‘modern’이 되었다. 이후 ‘modern’은 유럽인들에게 ‘암흑기’로 여겨졌던 중세와 르네상스를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되며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東洋에서 ‘近代’는 19세기 개항 이전에 한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사전을 봐도 1873년까지 ‘가까운 시대’로서만 이해되었던 흔적이 보인다.

‘近代’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기 이후에 일본에서 ‘modern’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부터 ‘問題的’인 단어가 된다. ‘近代’가 불분명하게 통용되며 다양한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modern’을 ‘近世’, ‘近代’ 등의 여러 단어로 번역하였다. 그 중에서 시대구분의 정식 용어로 사용된 것은 ‘近世’였고 ‘近代’는 시대구분적 의미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모호한 대상에 자주 사용되었다. 시대구분적 의미로는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한 ‘近代’가 자주 보이는 곳은 잡지다. 당시 잡지에서는 ‘近代’를 ‘현실적’, ‘자연과학적·물질적’, ‘개인주의적’, ‘욕망의 범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증가’, ‘신경과민’, ‘페시미즘’을 포괄하는 모호한 경향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상을 통칭’하는 것으로,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상의 경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매력으로서 ‘지적이고, 문화적이며, 젊고, 새로운’ 느낌의 ‘특별한 뉘앙스’를 대변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즉 일본에서 번역될 당시에 ‘近代’는 사전

적으로는 문자 그대로의 ‘가까운 시기’라는 의미와, ‘시대구분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이 쓰일 때는 의미가 불분명, 아니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에 따라 당시 새롭게 유입된 서구 문화의 분위기와 뉘앙스를 대변하는 유행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近代’라는 말은 이후 태평양 전쟁기에는 극복해야 할 서구의 대변가치로 여겨졌으며, 패전 후에는 전쟁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다시 일종의 긍정가치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近代’가 近世를 대체하여 정식 시대구분 용어로서 자리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였다. ‘近代’의 실제적 의미는 近代에 대한 수용, 극복, 부정, 비판, 탈피 등 다양한 흐름 속에서 개인, 사회, 시기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近代’에 대해 호불호가 나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近代’는 양날의 검과 같다. ‘近代’는 산업화를 동반하여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을 인간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하지만 ‘近代’는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전제로, 과거, 특히 전근대의 중세적 가치를 부정하여 동양을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결정적으로 基準과 中心이 난무하는 ‘近代’에서 인종, 국가, 지역,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주변으로서, 혹은 비정상, 혹은 열등한 것으로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학자들은 ‘近代’의 3요소를 ‘近代國民國家(혹은 民主主義)’, ‘資本主義’, ‘民族’으로 파악하는데, 이 개념들은 서양에서 정립된 것으로 동양에서는 어떤 것을 서구 ‘近代’의 3요소와 대응시켜야 할지 분야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近代’를 벗어날 것인지, ‘近代’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견이 갈린다. 또한 ‘近代’는 동양에서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定義의 측면을 넘어 현실적인 사항들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군대, 학교, 사회 등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요소들에 소위 ‘近代的 秩序’가 내재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近代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近代’가 갖고 있는 西歐中心主義·優越主義의인 요소들도 힘들여 걸러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近代’에는 더 많은 의미와 뉘앙스가 중첩되어 그 의미가 더욱 불분명해진 것 같다. ‘近代’가 비록 사전적 의미는 명확해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적인 성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여기서 ‘近代’의 字形을 살펴보자. ‘近’은 ‘辵(쉬엄쉬엄 갈 착)’과 ‘斤(도끼 근)’자가 형성 원리로 결합된 글자이다. ‘辵’은 원래 ‘辵’으로서 ‘彳(조금 걸을 착)’과 ‘止(그칠지)’로 구분된다. ‘彳’은 원래 ‘行’을 의미하는 것으로 行을 구성하고 있는 ‘彳’과 ‘亍(다리 절으며 걸을 축)’ 중 亍이 생략된 형태이다. 行은 갑골문으로 ‘사거리’를 의미하며 ‘항’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止의 갑골문은 ‘발바닥, 발자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辵’은 사거리에 발바닥이 찍힌 모양으로 ‘거리를 걷다’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걷다’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걷다’는 다시 ‘움직임을 대변하는’ 의미로 확대된다. ‘斤’은 ‘돌로 만든 자귀’를 의미하다가 점차 ‘도끼’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후 청동기·철기 시대에 ‘금속도끼’를 의미하게 되었다. 도끼는 이후 저울에 매달아 물건의 무게를 측정할 때에도 사용되면서 ‘무게’, 즉 ‘도량형 단위’를 의미하게 되었고 교역의 매개로 활용되었다. 이외에 ‘자르다’, ‘살피다’, ‘삼가다’의 뜻이 있다. ‘近’에 ‘가깝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여러 파자해석이 있다. ‘도끼(斤)를 던져서 날아가는(辵)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혹은 ‘도끼(斤)를 휘둘러 자르는 것들이 주변, 즉 가까운 거리(辵)에 있기 때문에’ 등의 설명이 그것이다. 즉 ‘近’은 크게 ‘도끼(斤)’와 ‘움직임(辵)’을 두 축으로 하여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다. ‘代’는 ‘人(사람 인)’과 ‘弋(주살 익)’이 합쳐진 글자로, 원래는 ‘사냥을 할 때 주살을 연이어 바꾸는 모양으로서’ ‘교체하다, 대체하다’를 의미했으나, 唐代에 太宗李世民的 이름 중 ‘世’를 避諱하여 ‘代’를 사용하게 되면서 ‘시대’의 의미 또한 갖게 되었다.

이 때 ‘近’과 ‘代’에 주목해보자. 먼저 ‘近’을 살펴보면, ‘辵’이 사거리에서 길을 걷는, 움직이는 모양의 상형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單線의인 길이 아니라 ‘사거리, 교차로’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필자는 이것이 ‘걷다’, 나아가 ‘움직임’의 본질이 단순히 몸이 가는 대로 주어진 길을 따라서 이뤄지는 맹목적,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가치판단적인 것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끼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도량형 단위로 사용되며 교역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도끼에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해석에서 ‘近’을 다시 파자해본다면 ‘가깝다’는 것은 ‘도끼(斤)를

어느 방향에 던질 것(込)이냐’, 혹은 ‘도끼(斤)를 어디에 휘둘러(込) 자를 것이냐’에 좌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깝다’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에, 즉 어디에(込) 우리가 가치(斤)를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형이상학적, 주체적, 가치판단적 가까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代’는 동양에서 흔히 ‘時代’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고 초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했던 동양인들의 시간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한 것은 ‘연호’의 사용이나, 시간을 ‘地支’로 나타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代’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서 ‘近代’가 내재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인식과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동양이 ‘近代’를 그 강력함과 세련됨에 대한 선망과 동경, 혹은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 혹은 강제적 이식을 통해 강박적으로,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문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近代’가 번역될 당시의 그 모호함과 불분명함이 이런 태도를 잘 대변한다. ‘近代’의 의미는 사전 속에 잘 정돈되어 있지만 ‘近代’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영향력은 현재도 여전히 문제적이다. ‘近代’를 가까이할 때 주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동양은 ‘近代’에서 배제되었고, 따라서 ‘近代’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며 개인들은 ‘近代적 질서’에 무의식적으로 유착되어 있다. ‘近’과 ‘代’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近代’를 역사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近代’ 속의, 더 나아가 현재의 ‘나’를 주체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김연중, 『한자의 뿌리』, 문학동네, 2001  
김인중, 『그림 한자』, 바다출판사, 2001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역, 일빛, 2003  
이한중, 『반전의 시대』, 서해문집, 2016  
탕누어, 『한자의 탄생』, 김태성 역, 김영사, 2015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